

65 日韓の古地名研究 일한의 고지명 연구

1985년 / 金澤庄三郎(가나자와 쇼사부로) / 508면 / 12.10-11 금882일 1985

이 책의 저자인 金澤庄三郎(가나자와 쇼사부로) 박사는 1872년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제3고등학교를 거쳐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했다. 동양어학(東洋語學)의 비교연구에 뜻을 두고 대학 재학 중에 북해도로 건너가 아이누어를 연구했다. 그 성과는 『아이누어 회화사전』이란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1896년 대학을 졸업한 후 문부성 제1회 동양 유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고, 3년 간 조선어 연구에 전념했다. 그후 문부성 국어조사회 위원으로서 유구(琉球)에 파견되어 남도(南道)의 언어를 연구하기도 했다. 이어 1913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러시아령(嶺) 시베리아와 만주, 몽고 각지를 순방하면서 러시아어, 만주어와 몽고어를 연구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어와 인도어를 연구하여 이른바 ‘동양어학’의 기초를 다졌다.

金澤(가나자와) 박사는 그동안 동경제국대학을 비롯하여 동경외국어학교, 국학원대학, 구마자와대학(駒澤大學) 및 쓰루미여자단기대학(鶴見女子短期大學) 등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며, 1967년 95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의 2부에는 ‘일한동조론(日韓同祖論)’이 있다. 이것은 가나자와가 1929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당시 저자를 유명하게 한 논문이다. 가나자와의 동조론은 민족사적 입장에서 연구가 아니고 언어를 통한 같은 뿌리란 점에 특징이 있다. 옛날의 조선은 문명



국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일본 고대문명의 많은 부분이 조선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언어의 측면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고대지명 가운데 조선말 계통의 지명을 고대 조선말과 내외 사서(史書)를 인용하면서 해명하려 했다.

‘동조론(同祖論)’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일제강점시 일본은 육당 최남선 선생을 만주에 있는 건국대학 교수로 임명하고 ‘일한동조론’을 증명하라는 과제를 준 적이 있다. 우리와 일본은 같은 뿌리가 아닌데 이것을 증명하라니… 이에 선생은 기가 막혀 연구를 거절하고 교수직을 그만둔 일이 있다.

제3부는 1949년에 작성한 논문인데 ‘지명의 연구’라 하여 한일 지명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의 여러 나라 언어에 관한 연구를 집성한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은 한일 고지명 연구에 있어서는 금과옥조와 같은 존재다.